

2022년 4월 28일 (목)

News

주담대 한도, 다시 확 풀다…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숨통

매일경제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고삐 죄어… 1기 신도시를 테스트베드 삼아 재건축 속도전… 청년 계층 등에 세제 촉면 완화안 동시 추진
부동산 민심 업고 출범한 정부라는 점이 내부에서 크게 작용해… LTV와 DSR 규제도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원칙 세워… 금융당국과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

KB금융지주 영구채 발행…수요예측 최대 5000억 규모

헤럴드경제

KB금융, 30년 만기 5년 콜옵션 조건으로 3,35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 금리밴드는 고정금리로 4.30~4.70% 제시… 수요예측에 따라 최대 5,000억원 증액발행 가능성
올해 5월 2,700억원, 6월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맞아… 발행자금은 회사채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

신한금융, 디지털자산 플랫폼 '쟁글'에 50억원 투자

뉴스1

신한금융, 쟁글(Xangle)의 운용사인 크로스앵글에 50억원 투자…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추진, 신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업 공동 발굴 등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계속 발굴하겠다는 의지 표명

은행권, 작년 새희망홀씨 3.2조원 공급…코로나에 목표 미달

연합인포맥스

국내 은행 작년 새희망홀씨를 3조 1,734억원 공급… 작년 공급목표인 3조 5,000억원의 90.8% 수준으로 목표 미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방문객 수 감소와 은행권 전반의 영업점 축소 등으로 고객 접점과 영업 역량 위축된 결과… 올해 3조 5,000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계획

튜닝한 '차박족'들, 5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대 40% 환급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업무용을 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 변경이후 차종으로 가입하도록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시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 신설… 과납보험료 11억원 환급도 예정

'생·손보 영역파괴' 시도에 흥역치르는 흥국생명, 삼성·동양도 관심

대한금융신문

금융당국,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생보사에서도 판매 시작했다는 점 예의주시 중… 흥국생명에 가입한도 설정 및 요율 산정 체계 변경 주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쉬운 상품… 생보사들은 먹거리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 강해… 현재 삼성생명과 동양생명도 담보 판매 고려 중

판 커지는 ETN 시장…증권사, 차별화 상품 앞세워 경쟁 '본격화'

아이뉴스24

26일 기준 ETN 순자산총액 9조 8,490억원 집계… 전년 대비 37.64% 증가 수준… 종목 수는 278개로 증가, 일평균 거래대금은 530억원으로 89%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 나오며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중… 상품 차별화가 시장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전망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자산총액 10조 원 넘어

KBS

공정거래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대상과 함께 내부거래 의무공시 필요
가상자산 거래 주력으로 하는 집단 중 첫 사례… 자산총액 10조 8,200억원 정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도 지정… 고객이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을 자산총액에 포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